

“2년간 경제 목표치 수정 불가피”

李 대통령 교도통신·BBC 인터뷰 “임기중 7% 고도성장은 포기 안해”

“日 독도 영토 명기 안할 것으로 믿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유가 급등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 “약 2년 정도의 (경제) 목표치는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8(선진 8개국) 정상회의의 참석에 앞서 청와대에서 일본 교도통신, 영국 BBC와 가진 합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목표치는 수정해야 하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가고 싶다”고 강조, 임기중 평균 7%의 고도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는 포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목표치가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발언의 배경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게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교차로로 구성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언급하며

“한일 공동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면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 “일반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식품 안전에 대한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며 “시위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정적 요소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화해와 통일로 이끄는 것이 가능한 진정된 대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핵 무기가 신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

감이고 검증과정에서 핵무기에 대해서도 검증될 기대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G8 정상회담과 관련, 이 대통령은 일본의 온난화 대책인 ‘후쿠다 비전’에 대해 “매우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도 (교토의정서 기한인) 2012년 이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년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 “양국간 경제적, 기술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의 이해와 양해가 없으면 합의

靑 “盧정부 자료 원본 통째로 봉하마을로”

盧측 “하드디스크 안 가져와… 원본 아닌 사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생산한 각종 국가 자료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옮겨 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올 2월 퇴임 직전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측이 원본을 가져가고 현 청와대에는 복사본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유출된 기록물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함께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간접적 전화 등을 통해 자료반환을 요청했으나 노 전 대통령측이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뤘다”면서 “국가기록원에서 공식 대응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 중에는 ‘국가정보원 비전 2005’와 ‘페트리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 ‘한미관계 미래비전 검토’, ‘북핵상황 평가 및 대책’ 등 대외비 또는 중요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와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하드디스크를 가져 온 일이 없다.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사본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재

임중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또 “청와대와 3월 말부터 이 문제로 대화를 해오고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뒤로는 이런 영터러 보도가 나오게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취임 직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법적대응도 하지 않은 채 극소수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변인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용과 경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자료유출의 경우 파악을 위해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공노, 李 대통령 불신임 추진

쇠고기 수입 등 반발...공직사회 타당성 논란

양대 공무원 노동조직 중 하나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발,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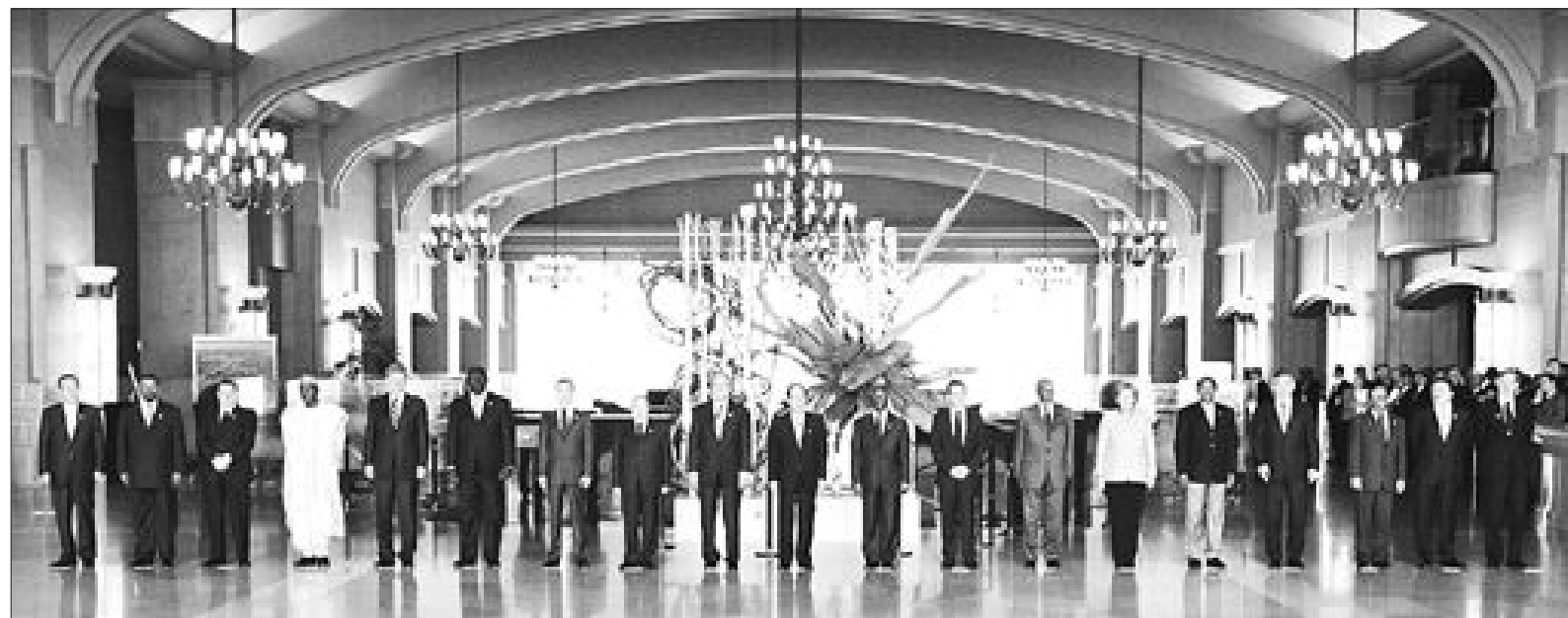
7일 전공노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비공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공무원연금 개혁 ▲ 중앙·지방 공무원 퇴출 ▲ 중앙·지방정부 조직개편 ▲ 상수도 민영화 등의 일방적 추진을 사유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실시하는 안건을 논의

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11일부터 각 지부별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불신임안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불신임 안건이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전공노 측과 접촉하고 있으나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의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이 7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원자호텔에서 G8 정상과 아프리카 7개국 정상과의 확대 회의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오는 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구 온난화와 원유·식량가격 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연합뉴스

G8정상회의, 阿7국과 확대회의로 개막 유가 급등·식량문제 논의

李 대통령 출국...G8정상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도야코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9일까지 1박2일간 이곳에 머물며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변화 대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역할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정상 기후변화회

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자발적인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선진국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개도국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금·기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기간 7개국 정상들과의 연차 회담에서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계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와 상호간 관계적 상,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7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원자호텔에서 G8 정상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7개국 정상과의 확대 회의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9일까지 3일간 열리며 지구 온난화와 원유·식량가격 급등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긴급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하게 된다.

회의 마지막날인 9일에는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7일 열린 확대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의 개발 지원 방법과 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후쿠다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환

경 관련 기술 이전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확대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둘째날인 8일에는 G8 정상들이 모여 온난화 대책, 원유·식량가격 급등 등 세계 경제와 아프리카 지원, 해빙 확산, 테러대책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정상들은 식량 문제나 테러대책 등을 담은 특별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9일에는 G8 정상과 신중경제국들과의 확대 회의에 이어 G8 정상과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맘모한 싱 인도 총리 등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 정상들이 모여 가운데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EM) 정상회의도 열린다. MEM에서는 교토의정서에 이어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6자회담 시동

각국 대표단 베이징 도착 양자 접촉-사건 의견 조율

작년 10월 이후 9개월여 간 열리지 못했던 북핵 6자회담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재개 프로세스에 들어간다.

6자 수석대표회담이 10일이나 11일째 개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가국들은 8일부터 베이징에 속속 도착, 활발한 양자접촉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 회담 준비에 들어간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이르면 8일 베이징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져 이날 북·미, 한·미, 남·북 수석대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7일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과 회담 개막 이전에 적어도 한 차례씩은 양자대화를 가진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히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의 베이징 도착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10일까지는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7회 1급 사회복지사
여름방학특강
 김형준 교수 특별초빙
 (08년 6월 27일 ~ 09년 1월 31일)
6회 대비 모의고사 적중률 1위!!

이름부터 인성까지! 사회복지사 1급 1차 시험 합격의 열쇠를 잡아주는 1급의 핵심 학습자료인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여드립니다.

1단계 사회복지사 1급 1차 시험 합격의 열쇠를 잡아주는 1급의 핵심 학습자료인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여드립니다.

2단계 사회복지사 1급 2차 시험 합격의 열쇠를 잡아주는 2급의 핵심 학습자료인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여드립니다.

3단계 사회복지사 1급 3차 시험 합격의 열쇠를 잡아주는 3급의 핵심 학습자료인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여드립니다.

www.dongbugosi.co.kr **광주 동부고시학원** 062) 233-0100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법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2.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3.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내 무등산고시점 무등산 문법정사 납골당 예약 및 문의: 062-233-0100, 00-501-000, 00-707-000